

환경 친화 건축의 생성과 발생적 개념에 관한 연구와 사례

A Study on the notion of occurrence and formation within green Architecture

김경숙* / Kim, Kyung-Suk

강승모** / Kang, Seong-Mo

김승귀*** / Kim, Sung-Guy

Abstract

This study basically is an attempt to categorize green architecture as the notion of occurrence and formation. In doing so would enable to seek for an insight of methodological matrix in green architecture. Which methodology should be arrived at to suit to which typology of green architecture. Moreover, the notion of occurrence is a fundamental principle to bring socialism into architecture. Therefore, it implies selecting which methodology to make green architecture can be associated with its communal sense and its appropriation is usually determine in a specific typology such as social program, community enlightenment and so on. At the same time, whether the notion of formation or occurrence, it is important to make clear insight the appropriation and alternation of technology while attempted to make green architecture. In a practical sense, this study ultimately proposes a critical aspect internationalism in the category of green architecture and speculates appropriate green architecture in substantial way.

키워드 : 친환경건축, 생성, 발생, 기술, 사회성

1. 서론

환경적 거시 관점에서 가늠할 때 건축이라는 인공(man-made)의 행위는 자연이라는 '기조(既組)적 환경'에서 '축조된 환경'을 만드는 인간의 욕구(needs)적 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건축의 기본적인 바탕은 발생, 생성적 환경과 자연 원론적인 환경의 연계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통사(通詞)적 구조의 구현이라는 궁극 성이 내재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사적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환경들 사이에서 표식 되는 부등식 관계로부터 현재 문제시되는 친환경과 비환경적 건축이라는 통념의 근거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른바, 과거 자연 원론적 환경의 영역이 지배적이었을 당시에는 친환경이라는 현안이 표상화 되지 않았던 반면 그것의 부등식 관계가 역전되면서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환경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원론적 환경으로 귀환하는 환경전의 단편적 문제만은 결코 아니며, 임상적 현실상

그것은 이론적 유토피아의 구현일 뿐 설득력 없는 이데아론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에서부터는 인공의 환경적 영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들이 연구되어져 왔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환경 맥락의 질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내재하고 있다. 건축이 가지는 그러한 윤리적 기능에 즈음하여 근세기에 이루어졌던 환경적 구현의 사례와 유형을 개괄하여 그것의 발생적 의미와 생성적 원리를 비교 분석하여 친환경 건축이라는 카타고리가 어떠한 방법론으로 사회성 구현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친환경 건축이 단편 대안적 방법에서 양산적 확산으로 지향 할 수 있는 근거 점을 마련하는데에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한다.

2. 기술과 생성적 환경 건축의 국제주의

통념적인 인식으로는 기술의 과도한 발달은 환경적 파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일원적 사고라

* 정희원, 호서대학교 디자인학부 조교수

** 정희원, 한세대학교 디자인학부 전임강사

*** 정희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겸임

할 수 있다. 오히려 첨단 기술의 적절한 사용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도구적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건축에 있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제2의 기계시대(machine age)라 불리는 1900년대 후반부터였다. 피터쿡(Peter Cook) 등이 참여한 아키텍그램(Archigram)¹⁾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으로 구현 될 수 있는 도시 청사진은 환경적 건축 만들기의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소위, 조립식 지속 유지 가능한 환경건축의 이론적 배경인 것이다. 이후 그들의 이론은 실제 일본의 메타볼리즘(Metabolism)²⁾의 생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하이테크 건축의 이념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림 1> 피터쿡, Plug-in City project(1964-66), 아키텍그램 그림 중 론해른의 Walking city(1964)와 함께 대표적 프로젝트로 꼽힌다. 조립식 도시의 대안적 실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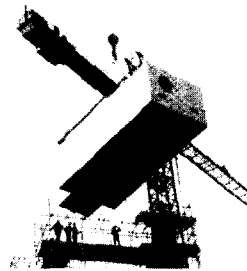
예를 들어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의 런던 로이드(Lloyd) 빌딩은 도시내의 불규칙한 맥락에서 조립식공법의 도입으로 건설 환경을 보존하는 메커니즘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도 있다. 그리고 하이테크 건축가들이 취하고 있는 '헛간(warehouse)'의 개념은 건축 프로그램의 이중(異種)적 교배를 통해 시간의 변천에 따라 버려지는 공장건축, 철도 역사 등의 간과되고 일원화된 건축 프로그램의 복수적인 재활용이라는 환경적 개념을 일부 취하고 있다. 그것의 이중적 교배현상은 단지 건축 프로그램내의 선택적 불확실성이라는 제한적 영역에서만 아니라 건축 메커니즘의 영역에서도 차용 적인 이중 교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건축기술의 특정 영역 성을 배제한, 보다 포괄적인 여타 분야의 첨단기술의 건축내 차용으로 환경적 공간의 생성으로 시방화 하는 노력이 근간에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현대건축의 조류적 현상 인 것이다. 실제로 1994년에 완공된 퓨쳐시스템(Future Systems)의 크레킷 구장의 Lord's Media

1)아키텍그램(Archigram): 1960년대 6명의 젊은 건축가로 구성된 아키텍그램 그룹은 주로 그래픽 적인 이미지로 기계 미학적인 관점을 대두시켜 하이테크 건축에 대한 친환경적인 낙천적 견해와 기계장치의 조립식 도시의 구현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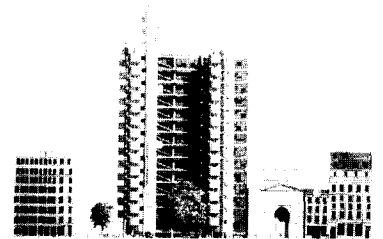
이들의 이론적 배경은 일본의 메타볼리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구성원로는 피터쿡, 론해른, 데니스크롬프턴, 데이비드 그린, 마이클 웹 그리고 위렌츨 등이 있다.

2)메타볼리즘(Metabolism): 1960년 동경에서 개최된 세계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처음 등장되었다. 일본의 근대 대표건축가 켄조 탄제의 영향을 주로 하여 2인의 젊은 건축가 키쿠나케와 구로 카와 그리고 건축비평가 카와조 등이 주축이 되어 공공공간과 사공간의 변증법적인 방법론을 추구하는 건축 그룹이다. 이른바 선 조립식 공법의 채택으로 건축물의 대량생산 mass production을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친 환경건축의 태동이 되는 건축 그룹의 하나로 현재 일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조립식 서민주택의 실효를 있게 한 근원적 배경이다.

Center는 세계 최초의 초경량 순수 알루미늄건축물로 조선소의 독에서 선(先)제작되어 건설 골조 프레임과 건축물이 동시 제작으로 조립화 되어 건설시 훼손될 수 있는 주변 환경과 폐기물양산 등의 환경 파괴적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그림 2> 로이드 빌딩의 화장실 유니트의 조립 장착 모습. 아쉽게도 한번 장착된 각 단위들은 영구한 건축부품으로 남게 되어 건축물 부품들의 재활용적인 측면을 지니지 못하게 된다.



<그림 3> 런던 로이드 빌딩.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도시 맥락 속에 건립 되어져야할 거대 사옥을 조립식 공법으로 메커니즘화해 건설시의 환경보존과 도시 기존의 맥락적 환경을 다이어그램 화해 보존하고 있다.



그림 4) 1994년에 완공된 퓨쳐시스템의 크레킷 구장의 Lord's Media Center. 조선소의 독에서 미리 제작되어서 구장에 조립되고 있는 모습. 건축기술의 차용적 방법론.

이외에도 건축 기술의 선(濼)적이고 적합한 사용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근간에 와서 건축의 윤리성이라는 문제가 대두

되면서 그다지 혼치 않게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들의 이념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미완성적인 기술의 선택적 차용으로 드러나는 환경 친화적 경우의수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관점도 없지 않다. 이를테면, 로이드 빌딩의 경우 조립식이라는 환경적 공법으로 건축의 메커니즘을 구현하였지만 한번 장착된 건물 부속품들은 다시 분리되어 재활용 할 수 없는 영구부품으로 남게 된다. 그것은 조립식 공법이라는 메타볼릭한 재활용의 이념성에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 이외에도 조립식 공법의 건축물 축조에는 상당부분의 경제성이 결여 되어있다. 그러므로 조립식 공법의 근본 지향적인 관점인 대량 생산적인 (mass-production) 제품의 추구에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예를 들어, 노만 포스터의 홍콩상하이은행사옥은 무려 139개의 조립단위로 구성되어있지만 단 두 개조차도 동일한 단위가 없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림 5〉 노만 포스터, 홍콩 상하이 은행사옥, 건물 가로에 투영된 채광으로 환경적 건축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채택된 조립식 단위의 개체화로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퓨처시스템의 Lord's Media Center의 주된 재료인 알루미늄은 재활용이 용이하지만 반면에 제조에너지(embodied energy)의 수치가 높고 전체 알루미늄건축물인 경우 소음을 유발시키는 우려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단지 기술의 고단위만의 추구와 선택적 사용은 일종의 패러다임적 환경건축의 형태로만 존재되어 질 수 있다. 물론 그것 또한 궁극적으로 환경적 건축으로 완성시키는 필수적인 단계의 일부이겠지만 그것의 국제주의적 유행성의 확산 문제에 봉착하여 기술력에 대한 주도권 소유에 의해 가지게 되는 등위적 환경의 질이 개발도상국과 기술 선진국사이에서 계층적으로 차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하이테크 건축가들이 취하고 있는 이중(異種) 교배적 프로그램인 '헛간'(warehouse)³⁾의 보편적 적용에도 일말의 한

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그들의 본연적인 이념적 개론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 유형에는 프로그램 채택 적인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고가의 경제성 결여의 임상 현실 때문에 고부 가치적인 사옥 건축, 공공건축, 기념건축 등 자본 건축적인 유형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기술 진보적 환경건축 구현에 즈음하여 양자적 카타고리의 이해적 구분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패러다임적 생성 환경건축과 프로그램 적인 발생적 환경건축의 양자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환경적 건축의 경영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으나 공간 원론적인 형태성에 취할 수 있는 개념적 이론부여에 환경이라는 부가적 기능을 취합하는, 일종의 건축의 프로그램 개발에 친환경이라는 기능성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건축의 사회성이 지닌 근본적 의미가 그것의 생성적 다이아그램이 아닌 발생적 맥락주의(contextualism)에 있듯이 원론적 환경의 테두리 내에서 건축 환경이 풀어야 하는 일반해 중에서 범례적 보기로 정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발생적 환경 건축과 지역성

환경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적 사안이 곧 지역성이다. 그것의 토양적 기후조건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와 공동성에 관한 지역 개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그것은 이른바 환경건축이 가지는 사회성의 표현이며 발생적 개념이다.

특히 근간에 이르러서는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카탈로그 내에서 발생하는 건축 사회성의 동시 실현의 사례들이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를테면, 메사추세츠주의 암헤르츠시의 빈민주택단지 조성에서 보여준 것처럼 발생적 환경친화성의 개념을 차용하여 저소득층 주택단지 조성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즉, 어떠한 특별한 장치적 생성 없이도 기존의 기술의 적절한 사용으로 주민 자발적인 환경적 행위를 발생 시켜 보다 시간성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자로부터 유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부가되는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공공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건축의 사회성을 유발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으로 볼 때, 친환경 건축이라는 이념 또한 사회성이라는 포괄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성의 중요 방법적 언어가 '발생'이라는 관계적 상호성에 의존되어 이루어지는 개인과 집단의 역학적 간섭의 공리성에 있다고 간주 할

3) 1960년대 당시 세계의 경제 상황에서 건축가의 입지는 그다지가 여위치가 않았다. 이점에서 하이테크 건축가들은 어렵사리 수주한 공장 건축 같은 당시간과 되었던 프로그램에 역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들이 만들어 낸 공장 건축의 혁신적인 모습은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도 남음이 있었고, 이후 그런 그들의 그런 공장 산업적인 건축의 모습이 여타의 프로그램에도 도입되어 이른바 '헛간'의 개념이 상용화되었다.

〈표 1〉 친환경 건축의 발생적 개념의 사례와 환경적 건축의 경우의 수에 따른 분류적 평가.

사례명 : Pine Street CoHousing
 위치 : 155 Pine St. Amherst, MA 01002, USA

구분	내용
건축물 내부 환경 연결 시스템	개요 : 시민 주택(Social Housing)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 프로그램 1. 도심의 고밀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 주택 단지 조성에 환경 친화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에너지 감소와 환경적 질적 향상 그리고 빈민 주택 지구의 사회적 프로그램의 융합 개발한다. 2. 대지의 협소한 입상 현실과 저 비용으로 구현 될 수 있는 환경 생태 주택의 현실적 대안. 3. 부가적으로 획득되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환경적 프로그램의 개발로 대안한다.
건축물 시스템의 환경적 출력	개요 : 단지 조성의 사회적 확립의 구체적 실현 방안 개요 1. 대지의 협소성과 다가구 주택을 계획하는 취약적인 요구 조건의 연역적 활용 ——2세대를 기본 단위로 하는 모듈의 선택 활용: 공기 환기 시스템 과 에너지 활용을 이웃 세대와의 구획 벽체에 설치하여 공리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 에너지 절감의 효과 와 이웃 지역 주민과의 단절성 극복.(발생적 공동관리 체제 도입)
환경적 요소의 건축물 시스템 유입	개요 : 주택 설계의 환경 친화성 조망 1. 저 비용 재활용 건축 재료의 활용 —— 셀룰로우스(cellulose)절연재등 2. 지면 열에너지 이용——주택 단지의 공지면 지하에 내재되어 있는 지층 열에너지를 펌프 추출 활용한다.(heat pump) 3. 공유 정원의 농경 재배——공동 부역과 창고의 설치로 수확 농작물의 저장과 재배의 공리화 추구——단지 내 80%의 야채류들의 소비를 자급자족. : 도심내 시민 주택 단지의 잔원 주택화.
환경적 요소간의 작용	개요 : 단지 조성의 총체적 결과 1. 공유적 에너지 소비 시스템과 공리적 집합 정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이 독신이나 맞벌이 식의 열악한 가족제도의 격리감을 공동 집합 단위로 승격. 2. 단지내의 공동 사업 영역의 확보로 비교용 인구의 활용과 자체 관심 유도. 3. 저 비용의 환경 친화 집합 주택의 대안——재료와 리사이클링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로 장기적인 지속유지의 환경 주택 유도.

때, 친환경 건축의 발생적 개념은 단지 친환경 건축의 범례적 언어이기보다는 궁극적인 통사적 구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이외에도 그러한 발생적 환경 친화적 파급효과와 실효를 거둔 사례들을 근간에 손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또 다른 일례로 미주지역 유타주의 Moab시에서는 지역적인 한계성과 취약점을 경영적 전략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체 발생적으로 환경의 문제에 접근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Sand Flats Recreation Management Program이라 명칭 되어져 Bureau of Land Management(BLM)의 지역 단체의 주도로 시행되어 성공적인 실효를 거둔 사례이다. 프로그램의 개괄적인 개요는 개발 적인 생성적 친환경 부어를 지양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역적 취약 환경에 대한 자의의식을 계몽하고 기존 환경에 대한 인식효과를 높이고 자발적인 환경 관심도를 고양하는 데에 있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막 황무지 지역을 자전거 산책로 등의 레크레이션 장으로 활용화 시키는 실용 단계에 즈음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효과와 회원제 도입으로 자본 경제적인 사유 원리에 기초화 되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보존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화 시설설비와 개발을 억제함과 동시에 기존 환경을 친 환경건축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지는 사례인 것이다.

4. 친환경 건축의 경우의 수

앞서 연구된 생성적 환경건축과 발생적 건축의 두 가지 관점을 비교 분석 해볼 때 단지 어느 관점이 보다는 우위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것의 환경 친화적 충족에 관한 경우의 수를 먼저 추론할 수 있을 법도 하다.

그것은 〈표1〉 와 〈표2〉 에서 볼 수 있듯이 개괄적으로 네 가지의 친환경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건축물내의 환경적 연결 시스템이다. 이른바 건축물 운영에 따른 친환경 성인데, 그것은 축조된 인공 건축물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친환경적 요소 인 것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시스템, 건축물 가동 동력원료에 친 환경성

〈표 2〉 환경 친화 건축의 생성적 개념의 사례와 친환경 경우의 수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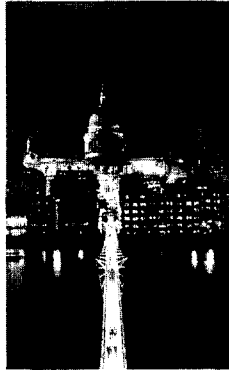
사례명 : Earth Center/ 건축가: 퓨처시스템
 위치: 영국, 요크셔, 돈캐스터 지방 페탕광 지구
 완공일자: 2002년/ 용도: 위락장, 교육, 전시장

구분	내용
건축물 내부 환경 연결 시스템	개요 : 하이테크 건축기술의 친환경성 구현 에어 크라프트, 선박 제조 기술적 축적의 최첨단 기술력을 건축 제조 기술에 도입하여 그린디자인의 개념을 메카니즘화 하고 있다. 1. 에너지 효율성——전면으로 개방된 지붕의 태양열 전지 판으로 공급되는 무상 전력의 이용——에너지 절감 2. 유기적 형태의 건축물 외형이 조력하는 자연 채광의 극대화 화로 실내 공간에 요구되는 인공 조명등과 각종 필수 제품들을 감소.
건축물 시스템의 환경적 출력	개요 : 자연 에너지의 최첨단 기술적 차용으로 건축물 운영 시스템으로 극대화 1. 우수 처리——지붕 전체를 이중 구조로 조립화 하여 건물 전체의 스펀이 우수 저장 창고로 활용하여 화장실 배수 등의 건물내 수자원으로 재활용——건축기술의 첨단적 공법이 단순히 심미적 기능에서 벗어나 환경의 그린 화에 조력하는 사례. : 기술의 적당적 사용. 2. 북쪽 역광의 채도 조절로 여름과 겨울의 일조량을 조절
환경적 요소의 건축물 시스템 유입	개요 : 건축 공법의 친환경성과 재료의 선택 1. 선 조립식의 공법——건축물의 각 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제조하여 단 시간 내에 현장에서 조립: 건설 구조 프레임과 건축물의 동시 건설——대지의 폐기를 감소 등 건축물 대지의 환경 보존——분해 가능한 조립식 건물로 건축물 자체에 대한 재활용이라는 대안적 사례. 2. 건축물의 주재료——알루미늄: 재활용이 용이.
환경적 요소간의 작용	개요 : 단지 계획에 대한 친환경성 1. 기존의 대지는 탄광촌——버려진 탄광촌을 생태교육장으로 재활용하는 단지 계획 ——이종異種적 프로그램의 선택으로 건축물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고 버려진 건축물의 자괴감을 극복하는, 이른바 대지 리노베이션의 사례

부여 등이 이것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의 환경적 출력인데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는 건축물의 폐기물에 관한 현안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건축물 외부환경에서부터 조망되는 건축물의 환경성 부여이다.



〈그림 6〉 Earth Center, 퓨처시스템



〈그림 7〉 노만 포스터, 밀레니움 브리지, 런던 테임즈 강, 2000.

즉, 건축물 외부 환경적 요소가 어떻게 건축물의 생성에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이 자리잡게 됨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가 이것의 경우들에 해당되는데 건축물 대지 배치 계획에 따른 땅의 친환경 경성 지속 유지 같은 것이 이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퓨처시스템이 계획하여 오는 2002년에 그 완공을 앞두고 있는 Earth Center는 원래의 대지가 폐광된 탄광을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대지 재활용 프로그램적인 계획으로 건축물의 설립 자체가 친환경 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친환경경우의 수들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균형 있는 환경적 건축으로 생성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기술의 환경적 요소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도구적 방법론이 단지 첨단화라는 선택적 가치에서 실험화만 추구되는 것은 다분히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기술의 환경적 요소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도구적 방법론이 단지 첨단화라는 선택적 가치에서 실험화만 추구되는 것은 다분히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건축기술의 조율 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시도가 단지 건축의 새로운 모습과 양상으로 추구되는 걸모습이 되어서는 그리 바람직 한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완공작인 노만 포스터의 밀레니움 브리지는 원래가 런던 테임즈강 유역의 조류와 풍속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된 교량으로 수면 부의 구조 지지 대를 최소화하여 강 하부 지층의 보존을 의도 한 것이나, 지나친 선진적 효과를 기대한 기술적 추구로 인해 개통 첫날부터 과도한 흔들림으로 재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폐단을 빚어내었다. 물론, 그것은 다수의 선(善)적인 측면 중에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적인 측면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는 그

다시 심각한 우려 점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적 생성의 환경적 건축은 그것의 일반화와 보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친환경적 경우의 수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완벽한 기술적 환경의 배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하지만 위의 발생적 환경건축인 경우에는 기존의 전제 조건을 환경학적으로 유도하여 발생된 경우의 수이므로 그것의 충족 조건이 대부분이 고르게 만족 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친환경이라는 문제를 굳이 새로운 가치의 생성적 단계의 대안이라는 인식체계에서 벗어나 현재 하고 있는 환경 조건들을 친환경의 경우의 수에 고르게 분포시킨다는 개념의 출발 또한 친환경 건축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적 태도는 한편으로는 기술 소유의 차이에 의한 계층적 환경의 질이 분화되는 우려를 감소화 시킬 수 있으며, 일면으로는 지역성에 걸 맞는 환경적 구성을 구현 할 수 있는 대안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것들의(생성 과 발생) 적용은 각기 다른 유형학(typology)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즉, 친환경 발생적인 건축이나 경영은 주로 공동성 혹은 사회성 같은 일반의 공리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계획안에(서민주택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적용 될 수 있으며 생성 적인 친환경 건축은 독자적 정체성이 부여된 신축 건축물에 그것의 가능한 대안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여태껏의 살펴본 환경적 건축의 두 가지 카타고리, 이른바 생성과 발생적인 친환경적인 건축의 사례들은 일면, 그것의 개념적인 방법론의 일부적 예이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사례들이 그것의 개념만을 표방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의 가능한 개념이 내포 되어있는 일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하는 것은 환경건축이라는 건축의 윤리적인 측면이 왜곡 될 수 있는 우려를 상대화하자는 의도이다. 즉, 건축 임상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방법론을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유행의식의 지나친 강박 의식에 몰두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 이미지적인 차용에 그칠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일면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적인 환경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환경건축이라는 이념적 표방과 패러디를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친환경건축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건축의 사회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의 실현이라는 개념적 인식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분류하여 시방한 이른바, 생성과 발생의 환경적 건축은 각기 다른 가치적 상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각기 다른 패러다임은 비교 불가능한 원칙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래야만 그것의 범례적 파급효과가 완성적인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

다. 그것은 건축에 있어 독자성과 양산 적인 이중적 구조가 항상 존재 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가늠 해볼 때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과학 범주의 양자 적인 교환 체계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 연구에서 지적한바 있는 ‘발생’ 적인 개념은 그러한 독자적인 해계모니 아래서 군 소화 될 수 있는 열등적 환경 현실을 임상적인 현실에 적합하게 최대한 그것과 등가 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론의 도출인 것이다.

실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친환경 경우의 수에 대한 충족도 에서도 상당부분의 만족 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친환경이라는 현안적 문제가 반드시 새로운 기술과 가치의 수용이라는 선택적 사용에서 그것의 특수해를 찾기보다는 기존 해있는 임상 현실 속의 보기들을 적당 (appropriate)적인 사용으로 풀어 낼 수 있는 일반 해를 도출하는 것이 환경적 건축을 우리 사회 속에서 보편으로 자리하게 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건축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환경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듯이, 친환경 건축이 근간에 시급하게 요구되는 발명적 구조의 이벤트 식의 적용보다는 그 동안에 단지 개념적으로 간과되었던 환경적 문제를 다시금 재 대두시킨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헌참고

1. Kate Nesbitt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2. ed. Richard Burdett , *Richard Rogers Partnership Works and Projects*, The Monacelli Press, 1996
3. Martin Pawley, *Norman Foster A Global Architecture*, Universe, 1999
4. UK 2K British, *Architecture into the Millennium*, Andreas Papadakis Publisher, 2000
5. Martin Pawley, *Future Systems*, Phaidon, 1993
6. Marcus Field, *Future Systems*, Phaidon, 1999
7. Colin Davies, *Hight Tech Architecture*, Thames & Hudson, 1991
8. Brenda Vale & Robert Vale, *Green Architecture: Design for a Sustainable Future.*, Thames & Hudson, 1991
9. Richard Rogers + Philip Gumuchdijian, *Cities for a small planet*, Faber and Faber, 1997
10. Rocky Mountain Institute, *Green Development*, John Willey & Son, Inc, 1998
11. ed. Charles J. Kibert, *Reshaping the Built Environment: Ecology, Ethics, and Economics*, Island Press, 1999
12. John Hix, *The Glasshouse*, Phaidon, 1996
13. Deyan Sudjic, 김인철 역, *Norman Foster, Richard Rogers, James Sirling 영국건축의 새로운 흐름*, 집문사, 1995
14. <http://www.coldhamarchitects.com>
15. http://solstice.crest.org/sustainable/renew_america/97nar/97a3439.htm
16. <http://www.ci.austin.tx.us/greenbuilder>
17. <http://www.wncrafts.org>
18. <http://www.teleport.com/~hgpf>
19. http://solstice.crest.org/sustainable/renew_america/97nar/95k2686.htm
20. *Architectural Review* No. 1195 , 1996. 9, *Sustainable Architecture*
21. *Architectural Review* No. 1214 , 1998 . 4, *Architecture and Ecology*
22. *Architectural Review* No. 1224 , 1999 .1, *Greening Architecture*
23. *The Architects' Journal*, Vol. 212, 2000. 6. 13

<접수 : 2000. 11. 10>